‘라디오스타’ vs ‘한끼줍쇼’ 수요예능 양대산맥

‘라디오스타’와 ‘한끼줍쇼’가 수요 예능의 양대 산맥으로서 시청자들의 웃음을 책임지고 있다.

시청률 · 화제성 접전…시청자 웃음 책임져
포맷 · 성격 전혀 다른 방향성 띠고 있어

지난 21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는 1부 5.4%, 2부 5.2%의 시청률(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을 기록했다. 동시간대 JTBC에서 방송된 ‘한끼줍쇼’는 5.354%의 시청률(닐슨코리아 전국유료가구기준)을 나타냈다. 완벽한 접전이다.

이 외 SBS ‘내 방 안내서’(2.5%, 2.2%), tvN ‘수요미식회’(1.6%), TV조선 ‘강적들’(3.1%)이 비슷한 시간대에 방송됐지만,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에서 따졌을 때 사실상 ‘라디오스타’와 ‘한끼줍쇼’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라디오스타’는 ‘누가 내 귀에 꿀 발랐어요’라는 특집으로 꾸며졌다. 스페셜 MC로 딘딘이, 게스트로 가수 이문세, 이적, 자이언티, 박원이 출연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방송이었던 만큼, 즉석에서 피아노 연주와 노래 선물이 이어졌다. 여기에 이적의 노련한 입담을 주축으로 토크에서도 상당 부분 웃음을 자아냈다.

‘한끼줍쇼’에는 배우 김아중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출연했다. MC 이경규, 강호동과 함께 경주 황남동으로 향한 이들은 ‘한끼 100호집’에 도전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결국 이경규와 김아중이 ‘100호집’의 영광을 안았다. 이경규와 강호동 팀 모두 한끼에 성공했으며, 아버님 어머님들과 도란도란 식사하며 훈훈한 저녁 풍경을 담아냈다.

‘라디오스타’와 ‘한끼줍쇼’는 매주 게스트를 초대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프로그램의 포맷이나 성격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띤다. ‘라디오스타’는 토크쇼로, 사전 인터뷰를 통해 미리 마련된 질문을 던지며 게스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한끼줍쇼’는 게스트 외에 일반인까지 등장해 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

‘라디오스타’는 그동안 쌓인 10년이라는 세월만큼 익숙한 케미와 재미를 보장한다. 게스트에 집중함으로써 조명 받지 못한 연예인들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하기도 했다. ‘한끼줍쇼’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이기도 했던 스타를 일반 가정집 안에 녹여내면서 친근함과 따스함을 더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소소한 감동을 안기는 것.

최근 시청률 추이를 비교하면 ‘라디오스타’가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다. 그러나 지상파와 종편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한끼줍쇼’가 ‘라디오스타’를 위협하는 강자로 떠올랐음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출범부터 B급 예능을 표방, 친숙한 게스트를 여러 번 초대하는 ‘라디오스타’와 달리 ‘한끼줍쇼’는 기존 예능에서 잘 보지 못했던 배우들을 섭외한다는 경쟁력이 있다.

평일의 딱 절반, 그래서 더 지치는 수요일 밤. 두 프로그램은 저마다 다른 포인트로 접근하지만 결국은 시청자들의 웃음을 추구한다는 데서 궤를 같이 한다.

노련한 MC들의 활약에 더불어 매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스트들까지.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어 줄 두 예능의 활약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마더’ 이보영, 비장한 눈빛 첫 티저 공개

tvN 새 수목드라마 ‘마더’의 첫 티저 영상이 최초 공개됐다. 이보영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와 서정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져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2018년 1월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수목드라마 ‘마더’(연출 김철규/ 극본 정서경/ 제작 스튜디오드래곤)의 첫 번째 티저 영상인 ‘레거시 티저’가 공개돼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더’는 엄마가 되기엔 차가운 선생님(이보영 분)과 엄마에게 버림받은 8살 여자 아이(허율 분)의 진짜 모녀가 되기 위한 가짜 모녀의 가슴 시린 러브 스토리.

믿고 보는 배우 이보영-이혜영-고성희 등으로 이뤄진 탄탄한 라인업과 함께 ‘시카고 타자기’, ‘공항 가는 길’로 디테일하면서도 감각적인 연출을 인정받은 김철규 PD와 영화 ‘아가씨’로 인간 본연의 감정을 담아낸 정서경 작가가 의기투합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공개된 첫 티저 영상은 엄마가 되기로 결심한 ‘수진’(이보영 분)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된다.

“혜나야”라고 나직이 이름을 부르는 이보영의 목소리가 단숨에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어 “잘 들어. 내가 널 데리고 갈 거야. 아무도 모르게 몇 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라고 올라오는 감정을 꾹꾹 억누르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앞으로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게 한다.

뒤이어 나란히 앉아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보영과 허율의 뒷모습이 가슴을 저릿하게 만든다. 이보영의 어깨에 기대어 몸을 맡긴 힘없는 허율의 작은 체구가 더욱 돋보이는 것.

더욱이 고요했던 이보영의 눈빛이 한 순간 번뜩이며 큰 결정을 내린 듯한 비장한 표정에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할 수 있겠니?”라고 묻는 내레이션에서 이보영의 담담하지만 눈물겨운 결심이 담겨 앞으로 이보영이 선보일 ‘모녀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tvN 새 수목드라마 ‘마더’는 도쿄 드라마 어워드 4관왕 등 작품성과 화제성이 검증된 최고의 웰메이드 일드로 손꼽히는 동명의 일본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2018년 tvN 첫 상반기 기대작. ‘슬기로운 감빵생활’ 후속으로 오는 2018년 1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

‘신과함께’, 개봉 첫 날 40만
관객 동원…압도적 수치 출발

말 그대로 압도적이다.

영화 ‘신과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 제작 리얼라이즈픽처스)이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기록적인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하며 개봉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저승에 온 망자가 그를 안내하는 저승 삼차사와 함께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신과함께-죄와 벌’이 20일 개봉 첫 날 40만6188명(누적관객수 42만2397명,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21일 오전 7시 기준)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이는 ‘국제시장’(18만4756명), ‘변호인’(11만9949명), ‘7번방의 선물’(15만2808명) 등 겨울 흥행 대작 오프닝 스코어의 2배 가량 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신과함께-죄와 벌’은 동시기 개봉작인 ‘강철비’(23만4478명),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11만5246명) 등 쟁쟁한 대작들의 오프닝 스코어까지 압도적으로 넘어섰다.

박스오피스 2위는 ‘강철비’(감독 양우석, 제작 와이워스 엔터테인먼트)로 14만287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관객수는 223만550명이다. 3위는 휴 잭맨 주연의 ‘위대한 쇼맨’으로 4만986명을 기록했다.

뉴시스

감빵생활 · 범죄도시, 조연의 힘

‘합(合)’이라고 한다. 한 작품 안에서 배우들이 만들어 내는 호흡과 어울림을 뜻한다. 그것이 매끄럽게 흘러갈 때 시청자와 관객은 극중 상황에 함께 빠져진다. 배우의 연기력은 물론 그만큼 조화가 중요하다.

케이블채널 tvN 수목 미니시리즈 ‘슬기로운 감빵생활’(극본 정보훈, 연출 신원호, 이하 ‘감빵생활’)가 그렇다. 드라마는 슈퍼스타 야구선수에서 갑자기 재소자가 된 김제혁(박해수 분)을 중심으로 교도소 내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준다. 장기수(최무성 분), 고박사(정민성 분), 문래동 카이스트(박호산 분), 한양(이규형 분), 유대위(정해인 분) 등 2상6방 식구들을 비롯한 재소자와 교도관의 비중이 상당하다. 교도관이자 친구인 이준호(정경호 분)를 중심으로 제혁의 가족과 연인 지호(정수정 분) 등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온다.

놀라운 점은 그들의 입체성이다. 누구 하나 평면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20일 방송한 9화에선 점점 마음의 문을 여는 유대위와 전 직장에 자신의 방식으로 복수하는 고박사의 변화가 비중 있게 그려졌다. 이처럼 매회 한 인물씩 조명하며 그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풀어낸다. ‘약쟁이 헤롱이’ 한양이 실은 서울대 약대 출신 엘리트이며 동성애자라는 반전은 재미를 더한다. 각 인물을 씨실과 날실로 삼아 흥미롭게 이야기를 짜낼 때 보는 이가 느끼는 몰입의 즐거움은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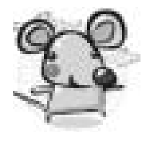
성실하게 쌓아올린 디테일의 힘이다. tvN ‘응답하라’ 시리즈로 보여준 신원호 PD의 장기이다. 각 인물들은 실재하는 듯 드라마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감옥과 어울리지 않는 해맑음을 지닌 김민성(신재하 분)이나 김제혁의 광팬인 준호 동생 준돌(김경남 분), 교도소 생활을 꿰차고 있는 법자(김성철 분) 등 스쳐지나갈 법한 인물들까지 각자 이야기를 품고 있다. 마치 서부교도소를 고스란히 가져온 듯하다.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앞서 충무로는 영화 ‘범죄도시’를 통해 이를 경험했다.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천만배우’가 아닌 이들을 주인공으로 기용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였다. 그럼에도 ‘범죄도시’는 680만 관객을 모으며 큰 성공을 거뒀다. 주인공 마동석·윤계상은 물론 진선규, 김성규, 박지환, 허성태, 최귀화, 허동원, 홍기준, 하준, 조재윤 등 파격적인 변신도 마다하지 않은 수많은 배우들의 힘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진선규는 제 38회 청룡영화상에서 남우조연상 수상으로 이를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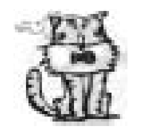
어쩌면 조·주연을 구분하는 일은 무의미할지 모른다. 분량을 떠나 배우들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를 위한 노력의 가치는 경중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운세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음력 11월 5일)



▶ 감당하기 힘든 일이 연속된다 해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의 결과에 대처해야 한다.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지난 일을 빨리 잊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 판단력이 뛰어나 어떠한 일이라도 이룰 수 있지만, 투기는 삼가라. 쉽게 벌면 쉽게 나가고, 남을 울리면 자기도 운다는 이치를 빨리 알라. 부부 갈등 또한 욕심에서 비롯되니 양보의 미덕을 길러야 한다.



▶ 벌여 놓은 일들이 하나하나 마무리돼 진행하니 본인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때다. 자만심만 버린다면 곳곳에서 좋은 소식을 안겨줄 듯하다. 힘들 때를 생각하고 상대를 마음껏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 주위의 오해를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 인내하는 미덕을 기르라. 그때 성공의 열쇠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알라. 4, 8, 10월생 남에게 구속되기 싫어하기 이전에 본인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라. 큰 성과가 따른다.

▶ 좋은 소리도 세 번 이상 하면 잔소리가 된다. 상대 마음을 너무 많이 저울질하다 모든 것을 잃게 되니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믿고 따르라. 마음과 육체를 바로 하고 오직 한길로 정진하라.

▶ 내 생각이 옳은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립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포부를 넓게 갖는 자만 성공하는 법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면에 있는 것을 파악해 처리할 때 주위 찬사를 한 몸에 받겠다.

▶ 모처럼 좋은 시기가 찾아와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만들 행운이 따르는 격이다. 그러나 가정은 남들이 보는 것과 달리 부부가 서로 화합하지 못 하니 안정을 잃고 있구나. 한 발씩 양보하며 가정을 지키면 사업도 성공한다.

▶ 벌여놓은 일이 답답하게 풀리지 않으나 매사 느긋하게 임하라. 자기 불행은 크게 보이고 남의 불행은 안중에도 없다면 평생을 헤어나지 못 한다. 먼저 남을 생각해 일 처리하는 아량을 상대에게 보이라.

▶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작전상 후퇴하는 것도 지혜임을 알라. 인생은 평온한 상태에서 때로는 만족치 못하고 권태로우며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이기고 재기하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음을 알라.

▶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나 내일의 번영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성공으로 이끈다. 다만 너무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모든 사물을 풍요롭게 받아들일 때 주위가 윤택해지고, 보는 안목도 넓어진다.

▶ 분위기를 바꿔 새로운 일에 대비하라. 과감한 대책을 세우고 도전하면 모든 것이 길운으로 연결될 듯. 세상에서 성공한 자는 가정을 원만하게 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자다. 1, 4, 9월생 용기를 갖고 밀어붙임이 좋을 듯.

▶ 현재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자만은 금물이다. 침착히 대처하면 가정 또한 편안함으로 웃음 지을 수 있다. ㅁ, ㅍ, ㅎ 성씨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는다는 것을 명심하라.